

다이와보노이 - 알레르겐을 흡착하는 내의 판매 개시

다이와보노이는 2006년 9월에 알레르겐(Allergen ; 알레르기 反應을 일으키는 物質)을 달라붙게 하는 내의(內衣) “알레르캐처(Allercatcher) AD”는 2006년 10월 중순부터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의사의 소개로 직접 판매하는 형식(直販形式)으로 관동(關東) 지구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다른 지구로 확대해 나간다. 판매 목표는 초년도(初年度)에 1억엔으로 잡고 있으며, 5년 후에는 5억엔을 목표로 잡고 있다.

면 니트 생지를 “철프탈로시아닌 테트라카복실산(鐵 phthalocyanine tetracarboxylic acid)”으로 염색한 것이며, 하우스 더스트(house dust)나 꽃가루 등에 들어 있는 알레르겐“을 섬유에 달라붙게 함으로써 피부에 말썽(trouble)의 원인 물질을 줄여준다. 약사법(藥事法)에서는 의료용구로서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 잡품(雜品)으로서 판매하고 있다.

“알레르캐처 AD”는 임상(臨床) 시험에서 아토피(atopy)성(일정 물질에 대한 과민 상태)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으며,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이와보노이에게 판매를 부탁하였다고 신슈(信州) 대학의 개발 책임자는 말하고 있다. 알레르겐에 민감한 피부에 필요한 내의이므로, 그럴수록 염색 조제 등은 전혀 안쓰고 있다. 색채는 철프탈로시아닌 테트라카복실산의 연한 녹색(綠色) 하나뿐이다. “알레르캐처 AD”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구미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이 회사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제품은 2002년에 과학기술진흥기구(JST)로부터 이 회사가 독창적인 시즈(seeds) 개발 사업으로서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기능성 섬유의

개발을 위탁받아 연구해 왔으며, 2006년 5월에 “JST”로부터 개발이 성공하였음을 인정받았다. 이 가공 소재는 이미 침구나 마스크 등으로 일부 판매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가전(家電)의 에어필터(air-filter)에도 채용되고 있다. ♣